

있는 점이 학계에 기여한 부분이라 여겨짐.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3. comments

1)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 틀인 기본 전체(합리적 인간: 경제인)에 대한 고찰로 그동안 외면해온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공리주의가 근대 경제학의 핵심인 합리성과 효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봄.

2)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이라고 생각됨. 필자는 말미에 근대 경제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공감 sympathy, 공평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와 벤담류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인간관과 비교하고 있음. 오늘날의 경제문제-특히 경제 양극화-의 해소책으로 '나눔경제', '따뜻한 경제' 혹은 '착한 경제' 등으로 지칭되기도 함)가 언급되고 있는데, 스미스의 인간관에선 가능하겠지만 벤담류의 인간관에선 적용에 한계가 있을 듯함.

3) 기독교(성경)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관(죄성으로 인한 탐욕)과의 근대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 인간관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경제/03/발표논문/

## 회계윤리교육과 윤리적 딜레마

이경락 (백석대 교수)

### 1. 서론

미국 기업윤리 분야의 권위자인 굿패스터(Goodpaster, 1983, pp. 287-296)는 기업의 관리기능이나 전략적 경영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기업윤리이며 기업윤리교육에는 시장에서 경영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교과과정에는 기업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기업과 사회간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피교육자의 윤리적 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회계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회계윤리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회계 윤리교육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공인회계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최관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 윤리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안태식(1997)의 연구에서도 교수와 기업은 회계학과 졸업생이 업무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과 관련된 13가지 항목 중 윤리의식을 6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권찬태 등(2003)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회계학 교수의 81.5%인 31명, 그리고 일반이해관계자의 67%인 130명이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회계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회계윤리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이해관계자들간에 높은 의견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에서 회계윤리 교육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학 교육이 방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전달과 습득에 치우치게 되었고 그 결과 회계윤리 교육은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기 때문에 보여진다(정건영, 1996; 한기수, 1999; 권찬태 등, 2003). 수준있는 회계윤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부족하고 적절한 교재나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회계윤리 교육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회계윤리 교육의 시행을 늦추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회계윤리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회계업무 종사자들과 교육자들의 인식전환과 연구활동의 부족이 내재

된 주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 분야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회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보다 진보된 윤리적 감수성(ethical character)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의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윤리적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거시적 세계 경제환경, 국가환경, 기업환경, 부서환경, 개인적인 환경(윤리적 성향)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 풍토의 조성을 위해 회계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윤리 교육의 전반적인 시행과 윤리적 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성격적 지침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기업윤리와 우리 기업의 상황

회계윤리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회계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확립해야 할 것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적인 행위와 비도덕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가치판단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윤리문제를 기업경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한 것이 기업윤리인 것이다. 기업윤리는 조직참여자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윤리성 자체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에 기초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조직경영이나 그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이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기업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경영자와 조직구성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널리 알려졌고, 경영층의 비리가 사회전반은 물론 기업과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들이 매우 복잡하여 쉽게 풀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신유근, 2011, pp.132-134).

오늘날 기업윤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업의 주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 전체의 효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기업

은 경쟁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 글로벌 경쟁상황에 노출된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생존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등 윤리적으로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기업의 이익과 생존이 경영자 자신의 고용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윤리수준이나 성격, 이해관계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도 윤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주요한 변수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연, 학연, 혈연, 연고주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권위주의적인 정치환경, 오랜 관치금융과 인위적인 과세정책, 정부주도적 경제정책으로 자율시장 규제기능이 취약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시 사회전체의 공익보다는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따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권기경, 2005). 결국 우리 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은 윤리적 생태계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속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2.2 회계윤리와 우리 기업의 상황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이 최고경영층의 직접적인 지시로 천문학적 금액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어 파산하거나 합병매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후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법규 정비되고 규제가 강화되었다(조성표외, 200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은 여전히 직계 가족이나 혈족 중심의 재벌 경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 내부거래로 인해 경영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숨기는 수단으로 회계가 악용되고 있다. 권위적인 기업문화에서 최고경영층이나 상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회계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부서 종사자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노출되지만 손쉽게 비윤리적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penalty나 사회적 재제를 받게 되거나 발각이 되지 않더라도 심리적 좌절과 사후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 비윤리적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결국 비윤리적인 사회적 관행과 의식수준, 취약한 제도적 기반, 권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최고경영층은 물론이고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인간 또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신이 윤리적 존재라는 윤리적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성이 회복된 윤리적 존재로서 윤리적 행동을 함으로써 윤리적 효용을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줄어들게 되고, '왜 나만 윤

리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이거나 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바보처럼 살아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는가 ?” 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선진사회의 기업들이 윤리와 준법경영을 중요한 경영과제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나 조직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선택만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마찰이나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의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업행동은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 결국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은 서서히 약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2.3 윤리적 딜레마와 회계윤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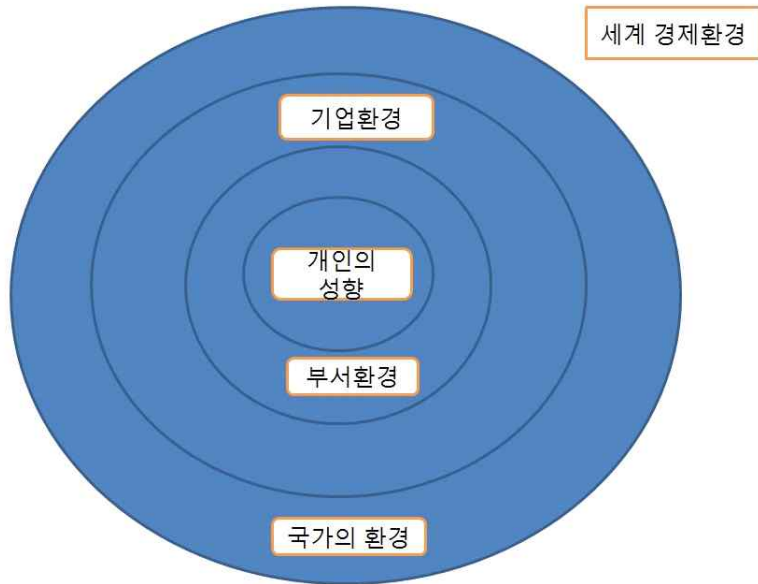
최현돌(2008)은 회계윤리교과목의 강의내용에 관한 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은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란 쉽사리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결정불능상황을 말하며, 이를 윤리적 갈등상황이라고 한다(신유근, 2011, pp. 140). 다음의 <표 1>에서는 윤리적 기준과 현실적(법적) 기준과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는 주로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영역인 비인간적 행동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보아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김원수, 1995, pp. 112-115). 예컨대, 기업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 양심선언자는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양심선언은 이를 행한 자신을 물론이고 양심선언으로 인해 추궁받게 될 관련자, 해당부서 그리고 기업과 사회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받게 될 피해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될 기업 비리를 판단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표 1> 윤리적 기준과 현실적(법적) 기준의 상충관계

합법적	비인간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비합법적	반사회적 행동	법률상충 행동
	비윤리적	윤리적

구체적인 윤리적 딜레마의 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회계윤리역량 강화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은 어떠한 환경에서 쉽게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표 2>는 윤리적 판단의 주체인 개인을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세계경제 환경, 국가의 정치 및 사회문화적 환경, 기업환경, 부서환경, 개인적 환경(개인의 윤리의식, 성향,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자로서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국가사회, 기업, 부서가 어떠한 윤리적 수준 내지는 윤리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능동적인 윤리문제 해결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대체로 분식회계를 행하는 기업들의 특성은 경영자의 부도덕성, 비도덕적 경영(immoral management) 내지는 도덕중립적 경영(amoral management), 기업경영실적 악화, 외부감사인과의 유착 및 부실회계감사, 작은 기업규모, 취약한 내부통제제도 등으로 나타났다(조성표, 2005, 신유근, 2011). 권위적인 정치환경과 지연, 학연, 혈연 중심의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 무리한 과세정책, 신용평가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부의 감독소홀과 무리한 특혜정책 등과 같은 국가환경도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촉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와 업적을 강요하는 부서환경 역시 윤리적 딜레마에 영향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2>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시키는 환경요인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회계관련 종사자들은 분식회계나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재제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컨대 파산, 벌금, 형사처벌, 상장폐지, 경영권 상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막대한 손해배상과 추가하락, 자본시장 위축, 국가신용도 추락 등을 경험하면서 비윤리적 회계관행을 사회적, 법률적으로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회계부정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요즘도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생태계와 구성원들의 윤리적 민감성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회계 윤리의 회복과 회계윤리의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나 회계실무자들만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계윤리를 포함한 시민윤리, 가정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전통윤리 등 윤리적 생태계 전반의 복원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교육적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결론 : 회계윤리 교육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성경적 조명

기업경영자가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는 개인의 상황이나 윤리적 성향 또는 이기심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사례중심의 교과과정 개발과 평생윤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 역량 내지는 윤리적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분야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은 주로 비윤리적 경영이나 도덕중립적 경영에 속한 기업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하고 문제해결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업환경 하에서는 비윤리적 의사결정들이 최고경영층을 중심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조직 구성원들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비윤리적 행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윤리적 분위기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윤리 내지는 회계윤리 회복방안으로 최고경영자 또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리더로서의 역할확립, 윤리적 생태계(사회풍토 또는 조직풍토)의 조성, 체계적인 회계윤리교육 및 연구의 지속적 시행, 회계전문자격 시험에 윤리적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의 최고경영자(국가원수,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조직의 장)들은 조직의 행위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지원하는 도덕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솔선수범해야 한다(Wood, 1990, pp. 255) 그간 우리 나라의 국가원수나 대기업 총수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선택을 반복해 온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은 자신이 바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할 당시 그의 재물이나 아내에 대해서 사심을 품지 않고 직무를 완수하였다. 요셉의 이러한 윤리적 감수성은 후일 그가 애굽을 통치할 때 백성과 신하들의 도덕적 리더로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조직은 개인에 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윤리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공유되는 경우에 개인이 비윤리적 행동의 유혹에 빠져들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앞으시고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신 장면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강사하고 돈바꾸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조직내의 회계윤리적 풍토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면, 윤리위원회 운영, 윤리적 평가항목을 인사시스템에 반영, 내부고발자의 보상 및 보호책 강화, 상사감사시스템의 구축, 경영자 및 종업원의 윤리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회계윤리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 및 기업,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사례중심의 회계윤리 교과목을 개발하고, 회계윤리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회계윤리 강사 양성과정을 정부주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회계윤리 부문에서의 연구장려를 위해 정부 및 학회, 공인회계사회, 관련 업계에서 지원하는 지속적인 연구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일정학점 이상의 회계윤리 교과목 이수요건을 강제하거나 최종 면접시험에 회계윤리나 직업윤리와 관련된 면접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Goodpaster, K. E.(1983), "Business Ethics: The Field and Course,"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izing Ethics*(Toronto: Lexington Books).

권찬태, 권기정, 김유석, 회계윤리교육 부재의 원인과 개선방향, 경영연구, 2003, 18(2), pp. 125-144.

신유근, 사회중시경영, 2011, 경문사.

최현돌, 오준환, 회계윤리교과목에 관한 연구-강의내용 및 강의계획서 모델 제안, 회계저널, 2008, vol. 17, No.2, pp. 121-152.

권기정, 회계신뢰성의 위기와 기화-갈등, 신뢰회복, 그리고 회계윤리, 회계연구, 2005, vol. 10, No.1, pp. 225-250.

권선국, 조성표, 김도형, 분식회계 예방교육 사례, 회계저널, 2005, vol. 14, No.4, pp. 153-180.

안태식, 최관, 이대선, 고완석, 고객지향적인 회계교육을 위한 연구, 회계저널, 1997, vol. 6, No.2, pp. 115-137.

한기수,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윤리교육의 실태와 기업윤리교육의 전망, 경영교육연구, 1990, 3권(3호), pp. 105-125.

최관, 이대선, 고완석, 안태식, 공인회계사를 위한 대학교육 개선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1997, 33호, pp. 143-166.

정건영,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회계의 역할과 우리나라 회계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회계저널, 1996, 5권 1호, pp. 119-150.